

월요광장

동시 외우는 시간



정봉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얼음 어는 강물이/ 춤지도 않니?/ 동동동 떠다니는/ 물오리들아// 얼음장 위에서/ 맨발로 노는/ 아장아장 물오리/ 귀여운 새야// 나도 이제 찬바람/ 무섭지 않다/ 오리들아, 이 강에서/ 같이 살자”

겨울이런 생각나는 노래 가운데 이원수의 ‘겨울 물오리’를 빼놓을 수 없다. 아이들과 박자를 맞춰 가며 큰 소리로 때장을 하면 정말로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노래다. 어른들은 나라 걱정, 살림 걱정으로 몸이 쪼그려 얼어붙지만 아이들은 손이 시러도 찬바람이 코를 빨강게 얼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논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속담처럼 복잡한 삶에 푹 던져진 어린이들의 단순명료함은 쾌감을 안겨 준다.

‘고향의 봄’과 ‘나무야 겨울나무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원수는 분단의 벽을 허물기 위해 삶의 조건들에 끊임없이 저

항했던 작가로, 아이들의 삶과 마음을 담은 수백 편의 동시와 동요를 썼다. 그가 병실에 누워서 쓴 마지막 시가 바로 ‘겨울 물오리’다. “나도 이제 찬바람이 무섭지 않으니 같이 놀자”고 노래한 것은, 전쟁으로 희생된 어린 영혼들의 곁으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시인의 마음 자리였다.

지금도 이런 노래를 아이들이 좋아하느냐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다. 몸에 좋은 노래는 아이들이 먼저 알아본다. “동요의 모든 부분이 좋을 필요는 없어요. 아이에게 딱 맞는 한 줄만 있어도 돼요.” 시 노래를 만드는 백창우 아저씨의 말처럼 자신들의 삶과 마음을 담아내지 못한 동요는 아이들에게 시시해서 점점 멀어졌던 것뿐이다.

올해는 아이들이 함께 동시 100편을 외워 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시를 공책에 옮겨 적고 외우다 보면 동시처럼 맑아지는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때마침 올해는 ‘동요를 쓰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동요만을 쓴 사람’, ‘햇빛은 아이들의 가슴에 별을 심은 시인’이라고 평가받는 권태웅 시인의 탄생 100주년이기도 하다.

그의 대표작 ‘감자꽃’은 노랫말도 쉽고 대구(對句)를 이루어서 아이들이 즐겨 부른다. “자주 꽃 핀 건 자주 감자/ 파 보나 마나 자주 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

자/ 파 보나 마나 하얀 감자” 모두 서른여섯 글자 안에 자연의 섭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서른넷 짧은 생애 동안 일본 제국주주의와 병마 그리고 전쟁에 맞서며 그이가 남긴 작품은 동요 370여 편이 넘는다.

“북쪽 동무들아/ 어찌 지나니?// 겨울도 한 발 먼저/ 찾아왔겠지?// 먹고 입는 걱정들은/ 하지 않니?// 즐겁게 공부하고/ 잘들 노니?// 너희들도 우리가/ 궁금할 테지// 삼팔선 그놈 뱀에/ 갑갑하구나.”(권태웅, ‘북쪽 동무들아’ 전문)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이렇듯 쉬운 말로, 시가 아닌 동요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작품은 흔치 않다. 이데올로기의 이분법적 대립을 말끔히 걷어 낸 시선이 아니고서는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다. 모두가 평화를 이야기하는 이때에 함께 노래하기 좋은 동시다. “모든 시는 노래를 품고 있고, 노래를 사랑하는 아이가 꿈을 가진 사람이 된다”고 했으니 꿈꾸는 아이들과 더불어 시를 읽고 쓰고 노래해야겠다. 작은 평화가 이로부터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열리는 겨울 올림픽, 평창은 세계를 향해 평화의 발신지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오늘을 기억하고 ‘평화가 시작된 동계올림픽’이라고 특별하게 기록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한반도 정세는 평창 이후에도 여전히 산 넘어 산일 테지

만 ‘행동하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겨울 동화’ 판타지로 끝나지 않고 화해와 공존으로 나아가기를 함께 기원해 본다.

도대체 평화란 무엇일까? “전쟁을 하지 않는 것/ 폭탄 따위는 떨어뜨리지 않는 것/ 집과 마을을 파괴하지 않는 것/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까지나 함께 있고 싶으니까./.../ 싫은 건 싫다고 혼자서라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 잘못을 저질렀다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 목숨은 한 사람에게 하나씩, 오직 하나뿐인 귀중한 목숨/ 그러니까 절대 죽어서는 안 돼. 죽임을 당해도 안 돼. 무기 따위는 필요 없어...”(한중일 평화그림책 ‘평화란 어떤 걸까?’, 허마다 게이코 글·그림/사계절)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나 같이 있고, 배고플 때는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을 푹 잘 수 있는 평온하고 일상적인 모습들이 사실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그것이 존중되지 않으면 평화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생명과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내가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문장 앞에서 생각이 골똘해진다. 평화로 가는 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법조칼럼

시간, 기억 그리고 메모



송창운
법률사무소 무진 변호사

새해의 한 달이 지났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나이를 먹을 수록 시간이 더욱 빨리 간다고 하는데, 10대 때는 시속 10킬로미터, 20대 때는 시속 20킬로미터, 50대는 시속 50킬로미터로 시간이 간다는 우스갯소리가 더 이상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시간에 가속도가 붙는 이유는 별개의

경험이 풍부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되는 일이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기 때문이다. 가령 어릴 때는 공원을 걷는 동안 매우 다채로운 경험을 한다. 눈이 덮인 나무를 난생 처음 보고, 단단하게 얼어붙은 호수역시 처음 보는 풍경이다. 산책길을 걷는 동안 보고 듣는 모든 풍경과 사건이 생소하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기억으로 저장된다.

반면 어른에게는 공원을 걷는 일이 참 쉽고 새로운 일이 아니다. 특별히 인상 깊은 장면들이 아니기 때문에 몽롱그러 ‘공일 산책’이라는 하나의 기억 덩어리가 된다. 기억을 단순화해 시간이 금방 흘러간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덩어리가 된다. 하루는 ‘출퇴근’, ‘업무’, ‘잠’ 등으로 단순화된다. 또 1년 혹은 10년 단위로 덩어리가 생기기도 한다. 즉, 시간이 좀 더 천천히 가길 바란다면 매 순간 좀 더 가치를 부여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사를 읽고 보니 웬지 그렇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진다. 무의미하게 흘러보냈던 시간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즐겁거나 슬프거나 했던 의미 있는 시간은 좀 더 잘 기억이 난다.

그렇다면 평소 시큰둥하게 보였던 시간이나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새해에는 주변의 자그마한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자 마음먹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수첩에 메모를 하기로 결심했다. 지금까지는 그러저러 다짐을 지켜가고 있다. 나중에 좋은 기억과 기록이 될 것이다.

또한 메모하기는 평소 만족스럽지 않던 내 기억력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내 기억력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잊고 만다. 그렇다고 영화 레인맨의 실제 모델이자 서번트 중추군을 앓았

던 킵 픽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싶지는 않다. 가능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행일 수 있다. 그래도 기억하고자 마음먹은 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늘 기록을 읽고 기억해야 하는 일이 많은 직업이기에 더욱더 그렇다.

생각해보니 이런 분들에게는 꼭 메모하기를 추천하고 싶다. 중요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나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분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거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이처럼 대답하는 것일 테니 따로 메모가 필요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영통한 생각은 이쯤에서 그만두고, 아무튼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았을 때 조금이나마 시간이 느리게 흐른 것처럼 느껴지도록 모든 분들에게 즐겁고 좋은 추억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기고

고백하라 신군부여



김대중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연구실장

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 당국은 광주에 공수특공부대 374명, 공격부대 5036명, 분쇄부대 2769명 등 총 8179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동이 터오기 시작하는 5시 10분경 도청을 포함한 광주시 일원은 계엄군에 의해 완전히 진압당했고 상황은 종료되었다.

진압 당일 이런 죽음도 있었다

27일 아침 7시 30분경 한약방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이금재(29) 씨는 출근하기 위하여 전남여고 근처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졌다. 27일 저녁 9시 40분경, 전남대 근처에 살던 여중 3학년 김명숙(15) 양은 친구 집에 책을 빌리러 가다가 수하에 붙음한다

는 이유로 계엄군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가던 중 죽고 말았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오전에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규명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과거의 조사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지상에서의 사격이나 공격 진압으로 시민을 살상한 행위를 조사하는 데 그친 데 비해 이번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는 공수부대를 비롯한 육군 병력의 발포 등과 아울러 공군이 합동 작전을 통해 시민을 상대로 헬기 사격을 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육군과 공군은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직접 참여했고, 해군(해병대)은 마산에서 광주로 출동 대기 명령을 받았다가 4일 후 해제되는 등, 계엄사가 육·해·공 3군을 동원하여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려고 했음도 확인하였다. 이것은 정권 탄탈과 시민 학살에 신군부가 3군을 다 동원하고 국민을 상대로 합동 작전을 펼쳤음을 말해 준다.

최근 공개된 틱 셔록 기자의 광주 관련 미국보고서(Kwangju 5.16-5.27 US Reports)에 따르면 당시 클라이스트 미

대사의 전문에 ‘12·12를 주도한 장군들은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음은 분명함’, ‘전두환 장군이 광주로 진입해야 한다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군 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경우 나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에는 발포를 허가받았음으로 5월 21일 대부분의 사상자가 이 범주에 속해 있음’이라는 구절도 나온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이 병력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 발포를 허가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허가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신군부 왜 3군 합동작전 폈나

답은 명백하다. 5·18은 피해 진상은 밝혀졌으나 가해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해의 정점’은 상식적으로 명쾌하다. 당시 3군을 동원할 수 있는 실권자가 누구인가. 5·18로 최고 권력과 이들을 가져간 자가 누구인가? 전두환이다. 혼자만 억울한가. 그렇다면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황영시, 최세창... 더 말해 무엇 하랴. 전두환과 최세창은 1960년 공수부대 창설 요원이다.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기무사 자료에 기재된 ‘사태 수습 시 고려사항’에는 ‘광주사태 폭도들의 탈주 방지 대책 긴급’이라는 제목하에 “광주 및 인접 사태 지역에 대한 진압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탈출구를 찾는 폭도들이 해상으로 탈출, 복귀에 잠입 동조하거나 서울 지역 등지에서 잠입했던 불순 분자나 주동 분자들이 서울 등 타 도시로 개별 탈출·재집결하여 제2의 광주 사태를 야기할 것이 우려된다.는 상황 판단 하에 해군과 해경 합동 해상 봉쇄작전으로 해상 탈주를 방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라고 써여 있다. 이것은 해군 동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신군부의 왜곡 공작이다. 5·18 당시 해상을 통해 북한으로 탈출하려는 시위대는 한 명도 없었다. 왜곡과 조작이야말로 적폐의 시작이다.

그대들에 보내는 마지막 권유

꽃은 눈감으면 보이지 않지만 소리에 눈을 감을 수 없다.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고백하라 신군부여! 이것이 5·18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기 전, 역사와 국민이 그대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권유이다.

社說

국방부 ‘511위원회’ 조작 내용부터 밝혀야

현 정부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노태우 정권 시절 5·18 민주화운동 왜곡을 주도했던 ‘511 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5·18 진상 규명을 주도하는 정부 부처의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정수만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988년 5월 11일 국회의원회 5·18 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국방부 ‘511 연구위원회’의 전담 실무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서 차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으로서 이 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차관은 511 위원회에서 문안 검토와 발표문 작성 등을 전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차관은 지난 주말 “초임 연구원으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했지만 제가 한 모든 것은 제 책임으로 통감하고 반성한다”는 입장문을 낸 데 이어 광주를 찾아 5·18단체 대표들에

게 사과했다. 하지만 5·18 단체 대표들은 서 차관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이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기 위해 5·18 역사를 왜곡한 511 위원회에서 무엇을 조작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밝히지 않는 한 사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엇그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등이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된 것과 관련, 38년 만에 처음 국민과 광주 시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서 차관이 현직으로 있는 만큼 5·18 특조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서 차관의 511 위원회 활동은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드러나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국방부는 특조위 조사 내용을 근거로 511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서 차관도 거기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부터 공개해야 하며 그레야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설 제수용품 마련은 전통시장에서

에호박 한 개를 사려 해도 천 원짜리 두 장 이상이 필요하다. 채소값이 크게 올랐다. 시금치·파·무 등도 마찬가지로. 간추리 탓에 시설하우스 재배 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든 데다가 난방용 연료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설 차례상을 준비해야 할 서민들로서는 큰 부담이다.

민족의 대명절 설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채소나 생선 등 물가가 크게 올라 설 준비를 하는 주부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럴 때일수록 값싸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로 차례상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광주 지역 설 차례상 비용은 백화점 22만8634원, 대형 마트 18만3712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은 13만3901원가량으로 백화점에 비해 무려 10만 원 가까이 비용이 절감된다. 광주 YWCA가 최근 광주 지역 백화점 2곳, 대형 할인매장 3곳, 전통시장 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성수품 20개 품

목 물가 조사 결과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품목만 보면 사과(300g이상·5개)는 백화점 1만150원, 전통시장 9167원으로 나타났다. 밤(1kg·상품)은 백화점 3885원, 전통시장 2700원이었으며, 대추(1kg·상품)는 백화점 2500원, 전통시장 1320원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이 훨씬 저렴한 것은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전통시장 이용률은 높지 않다. 아마도 주차 불편 등 과거의 선입견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전통시장도 대부분 주차장을 갖추고 있고, 명절 때는 주변 도로에 임시 주차도 허용된다.

따라서 전통시장 이용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대형 마트 못지않게 질 좋은 상품들도 즐비하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면서 경기 불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들에게도 작은 보탬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일석삼조다. 설 예에는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마련해 보자.

無 等 鼓

“사람들은 다른 유권자들과 기본적으로 유대감을 공유할 때만 민주적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유권자들의 경향이 나와 매우 다르다면, 그리고 그들이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투표에서 100대 1로 저 그 평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중략) 민주적 투표는 기본에 동의하는 사람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세계적·인류적 규모의 거대 담론에 대해 통찰력 있는 견해를 제시해 온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투표론’이다. 그의 베스트셀러 ‘호모 데우스’에 나와 있는 글인데, 여러 장에 걸쳐 해설이 되고 있지만 ‘투표가 진정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공동의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분명한 연대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극심한 내분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분당을 눈앞에 둔 국민의당이 ‘반쪽짜리’ 전당원 투표를 치르는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구성원 간에 투표를 통한 갈등 해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민주적 투표

관, 시대정신’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장벽이 존재해 왔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호남 소외가 해소되고 광주 5·18 진상이 드러나는 등 지역감정이라는 칸막이는 서서히 무너져 가는 분위기다. 또 신 4당 체제가 들어서면서 진보와 보수를 양분했던 칸막이도 경계가 해체되어 가는 모습이다.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의 정치는 온 국민에게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설득해 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선거라는 제도도 ‘민주적 투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또 다른 폭력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홍형기 정치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지 사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고,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